

報 道 資 料

題 目 : 副總理, 증시 Analyst와의 오찬 간담회

主要內容

- ☐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1.2.2(금) 12:00~14:30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국내 및 외국계 analyst 12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음

※ 별첨 : 주요 대화내용, 참석자
(인터넷 Address : www.mofe.go.kr)

報道資料生産課 : 證券制度課(500-5363~5)

증권제도과장 임종룡, 사무관 권대영

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

6

主要 對話內容

① 임지원 J.P Morgan 박사, 삼성투신 정용택 팀장

-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으며 특히 소비·투자 심리 측면에서 그러함
- 경제가 좋았다가 어렵게 되면 심리적인 위축감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때 정부, 언론, 학계 등 여론 주도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
 - 특히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미리 준비

< 부총리 >

- 분명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임. 그러나 어려운 국면을 지나면 좋아 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함
- 경제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경우 많음. 정부는 어렵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
 -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나 정부는 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대처
 -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부실도 정리하지만 미래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 창출에도 관심을 가지겠음

② 미래에셋 이정호 과장, LG 증권 김정환 과장

-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너무 높음
 - * 유통주식 기준으로 60%
 - * 시가총액 20개 종목의 외국인투자비중 70%
-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시중 단기자금을 장기투자자금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

< 부총리 >

-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연말이후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, 근로자주식저축 도입, 개방형 뮤추얼 펀드, M&A 전용 펀드 허용 등 많은 노력을 했으며
- 앞으로 연기금, 투신사 등이 시장지지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, 증권사, 투신사 등도 고객의 장기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품개발에 노력해야 함

③ 대우증권 정유신 부장, 현대증권 정태욱 이사, 삼성투신 김용범 본부장

-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보며 그 불가피성도 인정됨
- 다만,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적이고 엄격한 자구노력이 필요

- 특히 동 제도가 한시적인 만큼 향후 채권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

※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무보증 회사채 (정크본드) 시장이 중요함

< 부총리 >

- 지난해 자금시장 대책을 교통에 비유하자면 P-CBO, CLO 등의 제도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방도로를 만드는 것이라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임
-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다음과 같은 확고한 원칙하에 운용됨
 - 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용
 - ② 한시적(1년)으로 운용
 - ③ 기업의 자구노력(구조조정 계획)을 반드시 전제
 - ④ 시장금리(Market rate)를 적용
-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는 시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민간 연구기관, 업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될 것임

④ 임지원 J.P Morgan 박사

- 우리나라 경제상황 진단을 활황 또는 불황의 극단에서만 평가되고 있음, 그러나 실제경제를 양극단 사이의 다양한 중간단계가 있으며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함

< 부총리 >

- 이제 전문가(specialist)가 시대가 도래했으며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

⇒ 정확한 경제실상을 국민에게 전달해 주기를 기대함

- 기업에 대한 평가도 흑백논리에 의한 단순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곤란함. 비효율적인 기업도 우리 경제의 자산임만큼 이를 어떻게 개혁하여 살려내느냐가 중요함. 또한 어느 기업이 비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. 이것이 곧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임

⑤ CMB 김명한 본부장, 김용범 삼성투신

-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화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함
-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, 회계제도의 투명성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

⑤ 부총리 당부

- 본인은 기본적으로 시장시스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
 -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 가야하며, 만든 이후에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
- 앞으로 정부부문도 과거에는 정책이나 대책을 만드는 90%, 정책을 전달하고 보완하는데 10%의 노력을 했으나 이제는 각각에 대해 50%씩 노력을 할 계획
-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안정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

참석자 명단

성명 (나이)	소속 / 직위	학력	주요경력	참고
구본준 (33세)	모건스탠리 부장	와세다대	굿모닝증권	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
정용택 (34세)	삼성투신 팀장	중앙대	한누리살로만증권	성장률, 물가 등 거시경제 애널리스트
임지원(女) (37세)	JP Morgan 연구원	노스케롤라 이나박사	삼성경제연구소	성장률, 물가 등 거시경제 애널리스트
김용범 (39세)	삼성투신 본부장	서울대	CSFB증권	채권운용펀드매니저 채권시가평가 정착 기여
김명환 (39세)	CMB 본부장	서울대 미시간대	시티은행	원/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 딜러
이홍재 (38세)	한국투신 운용 팀장	서강대	한국투신	주식운용 펀드매니저 한경 2000 모의게임 수익률 1위(1,193%)
이정호 (35세)	미래에셋 과장	연세대	대우증권	외국인주식투자 등 애널리스트
정유신 (43세)	대우증권 부장	서울대 와튼 MBA	대우경제연구소	매경 증권인상 기업금융부문 금상 *최근 중소기업 P-CBO발행
정태욱 (42세)	현대증권 이사	고려대 와튼 MBA	SG증권 서울지점장	매경 증권인상 애널리스트부문 금상
정순호(女) (31세)	삼성증권 연구원	이화여대 美 MBA	미국 Bausch&Lomb	조선산업 애널리스트
김정환 (39세)	LG증권 과장	서울대	LG증권 조사팀	증시전망 등 애널리스트
하선목 (38세)	CSFB 팀장	서울대	장기신용은행	금융구조조정 부문